

김성 장흥군수, 재해위험현장 의회와 합동점검

대덕 분토천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이 대덕읍 분토천 수해복구 현장과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덕촌마을)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라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2021년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분토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은 지난해 10월 25일 합동점검 시 주민들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수해복구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복구공사 공정율은 95%로 본격적인 우기철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이어, 김성 군수와 왕윤채 의장은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매년 발생하

는 대덕 재해위험지구(덕촌마을 일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주민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 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면담해 주택침수 등 현장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2024년 신규 재해위험지구(대덕지구)로 대덕천 정비 및 펌프장 설치 등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건의했다”며, “담당부서와 함께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우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연 기자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이 대덕읍 분토천 수해복구 현장과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덕촌마을)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본격적인 장마철 돌입에 따라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장흥군 제공

해남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제안 공모

해남군은 오는 7월 14일까지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필요한 사업, 농가소득 증대 실현을 위한 사업, 기존과 차별되는 새로운 농업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사업, 기타 우리군 농업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이다.

신청은 해남군 농업인, 작목별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관련 분야 공무원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해남군 해남읍 땅갈대로 77-22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이메일(nekim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61-531-382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제안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보성,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 상생 도모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 회천 농협과 화순군 이양청풍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및 응원 메시지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협력 자치단체와의 자발적인 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기부는 보성군 회천 농협(조합장 정각상)과 화순군 이양청풍 농협(조합장 안상섭) 임직원 56명이 참여해 각 지자체에 500만 원씩 기부했다.

안상섭 이양청풍농협 조합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보성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교류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교차 기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보성군 회천 농협과 화순군 이양청풍 농협 임직

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지역농협 간 협력이 보성군과 화순군 지역 상생 발전과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보성군은 숙박 및 체험, 별초 대행 서비스, 이동 빨래방, 지역 농·수·축·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종수 기자

고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영민 군수를 포함해 부군수, 군의원, 고흥경찰서, 교통안전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에 이어 고흥군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교통안전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청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에 나누며, 교통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군민이 안전한 교통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제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운수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환경 조성 ▲교통안전의식 선제적 대응 및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9개 분야 다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전남도에 제출되며, 고시·공고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민 기자

진도, 청렴 향상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노조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향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와 함께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도군 실현을 다짐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공익신고제 안내문을 함께 배부, 반부패·청렴향상 캠페인을 추진했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과 청렴방송,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완도, 전남 유일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

완도군이 국무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친화 현장 대상’에서 전남도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현장 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

해 선정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상을 선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완도군은 2018년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안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나영 기자

공정과 상식